

문화예술전문매거진 <THE MOVE>와 함께 하는

# 이달의 추천 공연

# 123

- 1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212회 정기연주회  
지휘: 정치용 피아노: 조재혁  
연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2월 2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21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정치용 예술감독이 본격적으로 지휘봉을 잡는 이 무대부터 코리안심포니오의 본격적인 출항이 시작된다. 협주곡과 교향곡 모두 '1번'을 선보이며, 조재혁의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1번으로 문을 연다. 2부는 말러 교향곡 1번. 말러는 1888년에 교향곡 1번을 작곡한 후에 1911년 사망 때까지 10곡의 교향곡과 1곡의 미완성 교향곡을 남

겼다. 거의 2년 단위로 교향곡을 발표한 셈이다. 그에게 '1번'은 초심의 상징이자 선언으로 선배 작곡가들의 영향과 그 그들이 드리워진 음지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뚫고 나가고자 자신만의 의지와 양지를 갈구하는 힘이 담겨 있다. 코리안심포니오 이를 통해 초심과 의지를 다져본다.



정치용 예술감독이 선택한 프로그램은 말러 교향곡 1번 〈거인〉이다. 말러 교향곡 중 관객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말러의 음악세계에 입문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향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러의 색깔’로 그려져 있다. 야심찬 첫 교향곡의 대담한 개성이 정치용 예술감독의 지휘봉 아래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기대되는 바이다.

‘말러의 베르테르’라는 브루노 발터의 말처럼, 이 곡은 한 마디로 ‘청년 말러의 초상’이다. 말러는 이 곡을 위해서 거대한 편성의 오케스트라를 동원했고, 자신의 초기가곡에서 가져온 가슴 시린 선율, 오스트리아와 보헤미아의 민속음악, 유대인 밴드의 이미지, 선배 작곡가들의 작품에서 가져온 모티브 등 실로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했다. 그 결과 이 작품이 보여주는 것은 말러 음악의 순수한 원천이며, 나아가 그 모든 요소들을 내러티브적으로 엮어낸 한 편의 서사적 드라마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말러가 남긴 가장 대담한 동시에 다소 치기 어린 작품이며, 그래서 더없이 애뜻하고 사랑스러운 작품이라 하겠다. 폭발적인 핑음으로 시작하는 마지막 악장에서 주인공이 가혹한 운명과 싸워 마침내 승리하는 ‘거인’의 힘찬 발걸음처럼 말러 작품에 깃든 숭고함을 통해 힘찬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 프로그램

- 리스트 | 피아노협주곡 1번 내림마장조  
말러 / 교향곡 1번 〈거인〉
- 지휘 | 정치용
- 피아노 | 조재혁
- 연주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티켓 가격 | R석 6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 B석 2만원 | C석 1만원

## 2 영화음악 명곡 〈존 윌리엄스의 영화음악 콘서트〉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00주년 기념 페스티벌

영화음악 역사상 가장 잘 알려진 작곡가 존 윌리엄스의 음악과,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 100년 역사의 LA 필하모닉, 그리고 그 음악이 쓰인 오리지널 영화가 한자리에 만난다. 3월 17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존윌리엄스 영화음악콘서트’는 전통의 LA필하모닉의 고품격 사운드와 영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귀한 자리다. 세계 우수 오케스트라로 자리해 온 LA필하모닉은 올해로 창단 100주년을 맞은 전통의 악단이며, 클래식 음악계를 열광하게 한 예술감독 구스타보 두다멜의 역동적인 리더십 아래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LA 필하모닉은 그동안 댄스, 연극, 영화 등 폭넓은 예술분야를 아우르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오케스트라의 정의를 다시 쓰는 작업도 해오고 있는데, 이번 존 윌리엄스와의

LA Phil 100  
GUSTAVO DUDAMEL  
Artistic Director  
SEUL 2019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00주년 기념 페스티벌

지휘 구스타보 두다멜

구스타보 두다멜 &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스타워즈, 해리 포터, 조스 등”  
최고의 영화음악 작곡가

존 윌리엄스  
영화음악 콘서트

영화 〈조스〉, 〈해리 포터〉, 〈인텔리 리스트〉, 〈E.T.〉, 〈주라기 공원〉  
〈인디애나 존스〉, 〈스타워즈〉,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 〈타이타닉〉

2019. 3. 17 SUN 5PM 올림픽체조경기장

주최 most media  
티켓 VIP 8만원 | 8석 5만원 | 5석 4만원 | 4석 3만원 | 3석 2만원 | 2석 1만원 | 1석 5000원  
문의 02-541-3173



협업도 그 중 하나이다. 존 윌리엄스는 LA필하모닉과 두다멜의 음악성과 예술성에 깊이 감탄하여 녹음작업을 의뢰하였고, 그들의 앨범이 곧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매되며, 또한 201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연주할 예정이다.

이번 내한공연에서는 <해리포터> <스타워즈> <윈들러리스트> <쥬라기공원> <쥬스> 등 영화음악사에 길이 기록될 메가히트 음악들이 두다멜 지휘의 LA필하모닉 연주로 울려 퍼지며, 음악에 맞춰 대형 스크린에 오리지널 영화가 함께 상영된다.

미국 최고의 오케스트라 LA 필하모닉은 2019년 창단 100주년을 맞이하여 페스티벌투어를 나섰다. 우리나라에는 3월 16일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교향곡 및 피아니스트 유자왕 협연, 17일은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존 윌리엄스 영화음악콘서트, 18일은 롯데콘서트홀에서 피아니스

트 유자왕과 바이올리니스트 에스더유, LA필하모닉의 수석들이 함께하는 체임버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존 윌리엄스 영화음악콘서트>의 티켓은 오는 1월 15일 오후 2시부터 구입 가능하다.

**3월 17일 (일) 5pm 올림픽 체조경기장**  
**티켓 가격: VIP석 18만원 R석 15만원 S석 12만원 A석 9만원 B석 6만원**

### 3 2월 국립극장 새해 기원의 마음 담은 한국춤 잔치 국립무용단 명절기획시리즈 <설, 바람>

국립극장 전속단체 국립무용단(예술감독 김상덕)의 두 번째 명절기획시리즈 '설·바람'이 2월 5일(화)부터 6일(수)까지 하늘극장에서 공연한다.

지난 추석에 공연된 ‘추석·만월’에 이어 설 명절에 선보이게 되는 ‘설·바람’은 새해 기원의 마음을 담아내는 풍성한 한국춤 잔치로 펼쳐진다. 국립무용단 단원들이 직접 안무한 이번 공연에서는 ‘새로운 전통 쓰기’ 작업을 통해 우리 춤이 지닌 흥과 멋을 새롭게 선보이며,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김상덕이 안무한 ‘복의 시나위’가 화려한 대미를 장식한다.

‘설·바람’에서는 섬세하고 우아한 춤사위가 돋보이는 신작 4편과 지난 ‘추석·만월’을 통해 선보인 2편의 소품을 한데 모아 다채로운 우리 춤을 즐길 수 있는 무대로 채운다. 공연의 시작을 여는 ‘신일(慎日)’(장현수 안무)은 새로운 몸과 마음가짐으로 근신하며 복을 기원하는 고유의 전통 의식에서 기원한 작품으로, 왕무당의 솔로 신과 화려한 군무에 어우러지는 거문고 가락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금과 거문고 연주에 푸른빛의 의상을 통해 절개와 기개의 선비정신을 남성 춤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한 ‘한량무’(황용천 안무), 맑고 영롱한 방울소리와 우아한 춤사위로 여성 춤의 섬세함과 강인한 에너지를 선보일 ‘당당’(송지영 안무)은 우리 춤의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한다. 평채 호흡을 응용한 춤사위를 힘 있는 동작과 소고의 겹가락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평채소고춤’도 ‘설·바람’을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작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해 박수갈채를 받았던 ‘미인도’(윤성철 안무)와 ‘복의 시나위’(예술감독 김상덕 안무)는 이번에 다시 한 번 무대에 올라 무대를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국립무용단의 춤사위로 새해의 힘찬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설·바람’ 공연은 남녀노소 즐겁게 즐기며 명절에 멋과 흥을 더할 공연으로 제격이다.

고시계는 세상을 움직이는 문화예술전문지 **MOVE** 와  
 문화예술전문매거진 **MOVE** 와  
**‘문화로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공연 및 더무브 구독 문의: 02.523.7356